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27. 어린양을 경배하고 찬양함

2013. 07. 07.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도 계시록 4장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5:7~14]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8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9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11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1. 드디어 어린양이 책을 취하셨네요.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설명해주시지요.

답: 어린양이신 예수께서 책을 취하신 것은 그 책을 펴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라고 이미 장로가 선포했습니다. 또 책을 취하신 것은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가르쳐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집행하시고 주장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곱 뿔이 권세를 나타내는데, 어쩌면 그 책의 일곱 봉인을 떼시고 그때마다 보여주는 사건을 친히 주장하시는 권세를 행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리는 것은 복종을 나타냅니다. 네 생물이나 24장로는 어린양에게 복종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손에는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새 노래는 9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성경 전체에서 성도가 누구인지 찾으면 보편적인 의미로 성도들이 누군지 알 수 있게 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봅시다. 계14:12절입니다.

[계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에서는 성도라는 말이 15번 나옵니다. 그러나 성도를 정의한 것은 14:12절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정의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성도들을 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정의들을 종합한 것 같은 정의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깁니다.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다 금 대접을 하나씩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각 가졌다고 했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 대접이 모두 28개가 되지요. 그런데 8장 3절에도 금향로에 기도를 담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천사들에 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인데, 생물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의 금 대접은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맞지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2. 예,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9절과 10절이 새 노래의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1:5,6절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답: 그렇지요. 그러니까 1:5,6절에는 이 계시를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각각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 내용을 새 노래의 가사로 어린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군요. 그런데 1:5,6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고 해서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것이 바로 그의 피로 우리를 산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루마리 내용에 있는 사건들이 예수께서 피로 산 성도들이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서라도 친히 주관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1:5,6절을 설명할 때 이 내용이 출19:4~6까지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장에서 그 말씀 다음에 7절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출19:5,6절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므로 완성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5장에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역사적 진행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창조의 노래가 옛 노래라고 하면 구원의 노래는 재창조의 노래, 새로운 피조물의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노래 가사의 실제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땅에서 왕 노릇한다고 말합니다.

3. 예,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 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왕 노릇을 하는군요?

답: 여기 그렇게 계시되어 있잖아요. 물론 20:4절에 보면 하늘에서 1천년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과적인 일이고 결론은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그 새 땅에서 왕 노릇 합니다. 21:24에 보면,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사실을 계시하셨거든요. 그 왕들이 바로 여기 말씀한 성도들입니다. 성도 왕들이지요. 그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

고 성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21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이야기할 내용인데, 내년쯤에나 이야기 하게 되겠지요.

4.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땅에서 왕 노릇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상식으로 생각하던 것과 달라서 좀 이상한 기분입니다.

답: 아마 목사님께서 애청자들이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한 것과 전혀 다르게 엉뚱한 기억을 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영원히 사는 지역은 바로 이 지구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된 지구입니다. 원래 이 지구를 사람들이 살 곳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사45:18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시편에도 그렇습니다. 시115:16 “하늘은 여호와와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처음에 사람을 위하여 창조한 이 지구가 죄로 더럽혀지고 망가졌지만 새 하늘 새 땅으로 완전히 복원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고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로 내려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여기를 우주의 수도로 정하시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이 땅은 창세로부터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25:34)

5. 너무나 분명하군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장소에 대하여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래 가사에 1장에 없는 내용으로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라는 내용이 있군요.

답: 예, 예수님이 인봉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하면서 합당한 이유가 바로 1:5,6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는 형식이지요. 예수께서 희생과 부활로 이 죄의 세상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을 친히 간섭하실 정당한 자격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지구를 자기의 영역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했지요.(눅4:5,6)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사단을 이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셨습니다.(요14:30)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은 이 세상의 통치권을 잃었습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12:31]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16: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들은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을 받고 쫓겨날 것을 예언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므로 이 세상의 통치권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세상 임금 노릇하던 사단이 예수님의 하시는 권리에 이의를 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6. 예, 잘 알겠습니다. 11,12절을 보니까 이제 찬양하는 무리들의 범위가 확대되었군요.

답: 그렇습니다. 14절까지 나가면 온 우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계5:11,12]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말씀은 생물들과 장로들과 보좌를 둘러선 많은 천사, 곧 천천이요 만만인 천사들이 한 음성으로 어린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4장에서는 찬양이 이렇게 확대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4장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였는데요, 5장에는 어린양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우주가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큰 음성으로 찬양하는데 가사의 주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입니다. 그분은 원래 삼위 여호와와 한 위이십니다. 그런 분이 세상에 사람 되어 내려갔다는 것은 신비중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루시퍼의 손에서 탈환하였습니다.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지구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생명으로 옮기도록 모든 조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이것을 찬양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칠중 찬양입니다. 완전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힘을 같은 말 같은데, 능력은 잠재된 것을 뜻하는 편이고 힘을 그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찬송을 해야 하는데, 헨델의 메시아의 아멘 합창 바로 앞에 있는 합창이 바로 이 말씀을 가사로 사용했지요. 장엄한 합창입니다.

7. 참 우리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떠나시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신 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피조물들의 위치에 서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저 천번 만번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니 참 장엄한 합창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그렇군요.) 13절, 14절이 남았는데, 온 우주로 확장되는 찬양입니다.

답: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성부와 성자를 함께 찬양합니다. 4장에서 성부에 대한 찬양에서는 창조에 대한 것만 가사의 내용이었는데, 여기서는 성자와 함께 성부도 동일한 내용으로 찬양을 받으십니다. 7:12에서는 성부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존재와 능력과 행사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읽어봅시다.

[계5:13,14]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들릴지어다 하니 14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서는 찬양하는 존재들의 범위가 우주로 확대됩니다.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만물입니다. 이것은 11,12절의 네 생물과 24장로와 둘러선 천천만만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에 우주와 만물이 화답하는 화답창입니다.

8. 그런데 우주와 만물이 화답하는 찬양의 가사에는 부, 지혜, 힘에 대한 것을 빼졌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 앞에서 말한 일곱 가지 내용 중에 네 가지 내용을 화답찬송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입니다. 왜 네 가지 내용으로만 화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 지혜, 힘이 빠졌군요. 아마도 그것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부와 지혜와 힘에 대하여 찬양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 삼위에 대한 소개를 했지만 찬양받으시는 데에 성령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신성의 개체를 가진 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장에는 분명히 삼위가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하시는 일이 이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창조주께 찬양하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결과가 찬양과 경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함께 포함되어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되고요, 성자와 성부에게 이렇게 찬양의 말을 하는 데는 구원사업에 친히 고난을 당하신 사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요. 혹시 성경에 어떤 암시적인 기록이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찾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구원의 도리를 아는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타난 것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깨달은 진리 위에 굳게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부와 지혜와 힘은 예수님이 원래 부요하신 분이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잖아요?

[고후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특히 예수님을 찬양할 때 부에 대한 찬양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혜는 이 말씀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전1: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나 세상에서 행하신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해 보였지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지혜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힘을 찬양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찬양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고후13:4]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참으로 약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승리의 힘이었던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이 7중 찬양을 했는데 우주 만물이 아버지와 함께 찬양하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화답 찬양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는데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그런데 무생물인 피조물들도 실제로 찬양할까요?

답: 글썄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시편에는 그런 시가 여러 편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148편인데요, 그 외에도 그런 내용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설계했으면 그럴 수 있지요. 시148편을 한 번 읽어볼까요?

[시148:1~14]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2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3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이 찬양할지어다 4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5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라 6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7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8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9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10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11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12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13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라 14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세요. 생물이나 무생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무생물이나 사람이 생각하는 미물들이라고 하는 생물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니 그것들도 찬양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창조한 기능을 그래도 잘 수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창조주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찬양하는지 아니면 소리를 발하여 찬양하는지 모르지만 우주와 만물, 삼위일체 여호와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하는데, 지구와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특히 사람들은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 사항을 보여주고 어린양이신 예수께서 성부의 손에서 봉인한 두루마리를 받아 그 봉인을 떼시는데, 떼시기 전에 만물이 찬양하는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개 될 6장의 일곱 인이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그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부와, 힘과,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니까 초림 하셔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위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이런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24장로들처럼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열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10.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애청자들이 함께 거기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보좌 주위를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서 계셔서 봉인한 두루마리를 뿔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긴 사실을 인하여 두려워함 없이 말씀을 수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